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시작

남원시, 오늘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가능

남원시가 14일부터 남원시민이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17세 이상인 남원시민이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신분증을 지참하여 남원시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즉시 무료 발급된다.

2월 14일부터 전남·북, 대구, 대전, 울산, 강원, 경남·북, 제주에서 전국 발급 1단계가 시행되나, 전국발급 4단계가 완료될 때까지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발급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시민 스스로 발급하여 사용하려면, IC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되고, 민원인이 직접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은 신청 후 발급까지 약 3주가 소요되며, IC 주민등록증 수령 시에는 지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여야 한다.

IC 주민등록증 신청 비용은 기존 주민등록증 재발급 비용 외에 5천원이 추가되며, 기존 주민등록증을 한 번도 발급하지 않은 최초 발급 신청자는 무료로 발급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정부24 등 온라인에서 신원확인이 필요할 때, 금융기관·공공기관 및 병원에서 신분증 제시가 필요할 때, 편의점 등에서 성인 확인 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김민주 민원과장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으로 민원인 편익이 증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달집 태워 액운 날리고 한 해 풍년 기원"

임실군 7개 읍·면서 정월대보름 축제 열려

정월대보름을 맞아 임실군 삼계면 박사골을 비롯한 각 읍면 일대에서 화려한 불기둥이 솟아오르며 장관을 이뤘다.

군에 따르면 지난 12일 정월대보름에 삼계면 박사마을과 오수면, 청웅면, 성수면, 덕치면, 운암면, 지사면 등지에서 달집태우기 행사가 지역 주민들의 참여 속에 성황리 치러졌다.

삼계면 박사골에서는 심 민 군수와 장종민 군의장, 박정규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월대보름맞이 불꽃 축제 행사가 개최됐다.

달집을 태워 액운을 날리고 한 해의 행운과 풍요를 기원하는 행사로 삼계면은 2012년부터 시작하여 고유풍속을 이어 나가고 있다.

이번 행사는 삼계면 청년회(회장 김진환)와 방범대(대장 박정희)에서 주관했으며, 궂은 날씨에도 600여명의 면민들과 관광객들이 참여하여 다 함께 민족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화합을 다졌다.

정월대보름을 맞아 임실군 삼계면 박사골을 비롯한 각 읍면 일대에서 화려한 불기둥이 솟아오르며 장관을 이뤘다.

특히 국가무형유산 임실필봉농악과 삼계면 농악단 길놀이를 시작으로 전북도립국악원 국악 공연, 달집태우기, 강강수월래, 불꽃축제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이번 정월대보름 행사는 전북도립국악원 국악관현악 합주, 창작무용, 민요 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람객들의 흥을 돋우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부녀회에서 정월대보름 음식을 푸짐하게 준비하여 어르신들, 관람객들에게 대접하는 등 훈훈하고 넉넉한 정월대보름 축제가 됐다.

임실군은 이날 삼계면을 포함해 7개 읍·면에서 농악 마당과 달집태우기 등 정월대보름 행사를 개최했다.

이와 별개로 사회복지법인삼동회 임실군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학성)이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지난 12일 지역 어르신 200여명을 모시고 효나눔 한마당 행사도 열렸다.

행사는 어르신들의 한해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기 위한 필봉농악의 신명나는 공연이 진행됐으며, 임실군 여성의용소방대의 자원봉사활동으로 오곡밥 음식을 나눠 먹는 시간을 가졌다. 그 외에도 다양한 전통 놀이를 진행해 대보름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심 민 군수는 "이번 정월대보름굿은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여 행사 준비에 애쓴 면민들께 감사하다"며 "그 간의 힘들었던 일이나 쌓인 액운은 활활 타는 달집과 함께 다 날려 버리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공약 이행 박차… 매니페스토 실천 교육 실시

순창군이 민선 8기 4년 차를 맞아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내실 있는 마무리를 위해 연초부터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지난 12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부서별 공약사업 담당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매니페스토 실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이 강사로 나서 '다시 쓰는 지방자치 회복력'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매니페스토 이해와 중요성, △공약사업 이행률 제고 방안과 평가 안내 등 공약 담당자의 공약 실천역량과 달성 이해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실제로, 순창군은 2024년 말 기준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총 5개 분야 79개 공약사업 중 52개 사업을 완료하며 평균 이행률 87.5%를 달성한 바 있다.

군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공약사업 담당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공약사업 달성률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고 교육 취지를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부모·영유아 건강한 성장 돕는다

남원육아종합지원센터·아이맘행복누리센터,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남원시가 운영하고 있는 남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와 아이맘행복누리센터(이하 아이맘 센터)에서는 푸른 뱀의 해 2025년을 맞아 미취학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센터에서는 기존 운영 중인 오감, 미술, 국악, 요리 프로그램 외에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체육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유아 수요가 많은 국악 프로그램을 하원 후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변경했다.

또한, 지난해 참여도가 좋았던 토요일 부모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원데이 부모자녀 체험 프로그램을 증설, 관내 예비 부모 및 영유아 자녀를 둔 양육자를 대상으로 한 공통 부모교육과 조부모 대상, 예비 학부모 대상 등 양육자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가족 모두가 참석할 수 있는 음악회, 연극 등의 다양한 문화행사 진행을 기획하고 있다.

특히, 특화사업으로 전문상담 지원을 시행하여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와 부모를 지원하고 양육방식을 개선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아이맘센터에서는 2024년 교육비를 받아 진행하던 유아판소리, 장구놀이 프로그램을 지역 특색사업으로 지정하여 무료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새로운 영유아 프로그램으로 영어 스토리텔링, 동화미술, 성장마사지를 추가 신설하여 영유아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부모성장 프로그램으로 필라테스, 줌바댄스, 난타, 성인영어를 신규 개설하여 따로 시간을 내기 힘든 예비부모 및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여가생활을 활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여름, 겨울방학,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등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족이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양 센터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홈페이지 및 네이버로 예약 신청이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제63회 순창군민의 날' 4월 18일 개최

민속놀이·군민화합음악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마련

순창군이 오는 4월 18일, 순창읍 중앙로 일원에서 '제63회 순창군민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군민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전통문화의 정취를 담은 민속놀이 경연대회와 화려한 축등행렬이다.

여기에 군민화합 기원제, 옥천 줄다리기 등 전통 행사와 함께 청소년들을 위한 어울마당과 골목페스티벌이 더해져 세대를 아우르는 풍성한 축제의 장이 펼쳐진다.

특히 이번 행사의 대미를 장식할 군민화합음악회는 군민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 순창군은 현재 음악회 개최를 위한 제안서를 공모 중이며, 2월 17일까지 접수를 마감한 뒤 21일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군민화합음악회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며, 군민들이 선호하는 유명 가수들의 무대가 마련되어 참가자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

아울러 올해는 순창군민의 날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다채로운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다.

4월 15일에는 KBS 전국노래자랑이 열려 전국적인 관심을 모을 예정이며, 18일에는 구곡순담 100세 잔치가 개최되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축하와 감사의 자리가 마련된다.

또한 양지천에서 열리는 봄나물축제는 순창의 싱그러운 봄 정취와 함께 지역의 우수한 특산물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순창군민의 날 행사가 군민 모두의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면서 "많은 군민들이 참여해 우리 순창의 자긍심을 높이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소방서, 작년 임산부 안심 119구급서비스 151명 등록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임산부 맞춤형 119구급서비스가 작년 한해 기준 151명 등록하였고, 관내 5명의 출산 임박한 산모가 119 구급차량을 이용하여 병원이송 등의 서비스를 받았다고 전했다.

임산부 안심 119구급서비스는 본인 또는 보호자(대리자)가 가까운 소방서 또는 보건소에 비치된 리플렛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인적 사항과 진료병원, 복용약물 등 정보를 등록할 경우, 출산 전·후 진통 및 출혈 등 응급상황 시 출동하는 구급대원들이 사전 정보를 바탕으로 적절한 응급처치 및 구급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안동춘 대응예방과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가시책에 발맞춰 분만의료 사각지역에 있는 임산부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출산장려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 신덕면, 마을복지계획 수립 위한 주민욕구조사 실시

신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소지현, 김선기)가 2월 1일부터 14일까지 2025년 마을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마을복지계획이란 우리 동네 복지 문제를 파악하여 스스로 해결 가능한 과제를 주민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참여하는 과정을 담은 주민주도의 복지 실천 계획을 말한다.

협의체는 지난해 12월 4차 정례회의 시 마을복지계획단을 구성했고, 마을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첫 단계로 신덕면사무소 내에 조사판을 비치하고 다양한 계층의 지역 주민 욕구를 조사하며, 6개 분야의 항목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민욕구조사는 우리 마을에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 가구 발굴 및 지원 등 가장 필요한 복지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했으며, 이를 통해 지역 당면 문제와 주민들의 복지 욕구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